



군산공장 본격 가동!!

최대 부지의 우리 회사 행운의 7번째 공장, 군산 조선소 간의 시너지 효과 기대

우리 회사 7번째 공장이 군산공장의 순조로운 항해가 시작되고 있다.

군산공장은 지난 해 10월 착공하여 11월부터 본격 가동이 이루어졌다. 전체 3만9천㎡(1만2천평) 부지에 준공된 군산공장은 올해 연 매출 11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주로 메인데크유니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앞으로 tank top unit와 under group unit, 그외 중소형 유니트 생산을 계획 중이다.

지난 11월 말부터 실제 매출이 발생하면서 군산 공장은 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산 공장은 현대 중공업 군산 조선소가 건설되면서 협력업체로서의 요청을 통해 추진되었다. 조선소와 공장이 가까이 자리 잡음으로써 운송비용 절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육상운송이 불가능한 유니트 또한 수주가능한 점과 향후 중국의 전초기지로써 군산은 지리적 이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군산의 특성상 바람이 강한 겨울에는 육의 작업에 제약이 있고 근처 기자재 업체가 없어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어려움이 있다.

현재는 부산에서 자재가 운송되어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만큼 오작이 발생할 경우 대응 시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작 발생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군산 공장은 같은 크기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영암공장에서 한 단계 발전시킨 형태로 영암 공장 분석을 통해 장점만 반영되었다. 크기와 장비가 동일한 A/B동을 건설하여 2척을 동시 진행하여 효율성을 높였고 아작장을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이를 통해 최고 품질의 유니트를 생산하고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산 공장을 총괄하고 있는 박원석 부장은 "군산 조선소에서 유니트 업체에서는 최고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무엇보다 안전하고 능률적인 공장을 만들어 최대의 효과를 이루겠다"는 힘찬 포부를 전했다.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군산 공장도 탄탄하고 좋은 조선기재자로 이름을 알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YANMAR ENGINE 우리 회사 방문

조선 시장에 위기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우리 회사에 대한 일본 조선업계의 관심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일본 YANMAR ENGINE의 본사방문이 있었다.

YANMAR ENGINE은 우리와의 지속적인 거래로 인해 일본 내 조선소의 물량도 한국 메이커로 전환하고자 하는 계기로 방문이 이루어졌다. 이번 방문은 YANMAR ENGINE 본부장 외 9명과 국내 PLUS ENGINE 직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품 소개와 공장 투어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좋은 결과가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회사는 기술력과 품질을 내세워 이번 거래가 잘 성사된다면 해외 시장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OSHIMA 조선, 우리 회사 방문

일본 조선업계와 또 하나의 인연이 생겼다. 지난달 25일 Oshima 조선의 본사 방문이 있었다. Oshima 조선이 블로어 패키지 제작에 관심을 가지던 도중 우리 회사와의 만남이 성사되었다.

이번 방문은 블로어 패키지를 제작함에 있어 무엇보다 많은 운송비에 고민을 하던 중 우리 회사에 대한 관심으로 이루어졌다. Oshima 조선은 bulk carrier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업체로 알려져 일본 조선업계 내에서 꾸준히 성장해 나가고 있는 회사이다.

우리 회사는 Oshima 조선의 이번 방문으로 일본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DSEC 기원강 사장님 일행 당사 방문

DSEC 기원강 사장님 일행은 지난 3월 8일 당사를 방문하였다.

이날 방문은 상호 협력 및 우호 증진을 위하여 진행되었으며, 방문단 일행은 다대1공장 및 다대 2공장을 차례로 방문하였다.

공장 견학에서 방문단 일행은 특히 STURN TUBE를 중점적으로 시찰을 하였으며 선보의 제작 기술력에 높이 평가하였다.



Inside SUNBO 회사 소식

그때그선보 선보인이라는 자부심으로...

1986년, 선보는 조선 기자재 업체로서 첫 발을 내딛었다. 25년이 지난 지금, 우리 회사는 부산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IMF와 수많은 불경기 등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선보만의 기술력과 품질을 통해 우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선보의 역사 속에는 많은 이들의 꿈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 첫 번째로 1990년 이전부터 우리 회사에 입사하여 선보의 모든 발자취를 함께한 최홍렬 상무 그리고 임영삼 부장, 최동배 부장, 이 세 사람과 함께 최초의 선보를 되돌아 보고자 한다.

Q 최초의 선보는 어땠나요?

최홍렬 상무 : 처음의 제작도가 생각나네요. 반 형치의 형태였기 때문에 오작도 많았죠. 처음에 조립도만 가지고 부품도를 그려야 하는데 유니트의 역할도 전혀 모르는 상태라 힘들었어요. 회사에 근무하면 설계자가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모르는 것은 묻고 일일이 공부하며 상세 설계를 직접 만들어 나갔어요. 부품도를 완성하는데 한 달이나 걸렸죠.

임영삼 부장 : 처음에는 공장도 천막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스트레너 조립장 크기나 자재창고 2개 정도 크기 되겠네요. STRAINER의 첫작업을 할 때 공장 높이가 낮아 필터가 들어가지 않아 바닥에 구멍이랄 수 밖에 없을 정도였죠. 자재를 사야 하는데 지금이 낙낙하지 못하다 보니 로스가 적은 것으로, 규격에 맞는 것으로 구하기 위해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몰라요. 잔재가 남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최동배 부장 : 품평회를 하는데 5톤 차에 물품을 싣고 각 사업장들을 다녔어요. 품평회를 준비하는 것도 오래 걸렸지만 품평회를 다니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죠. 한번 5톤 차를 타고 출발하면 한 곳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업장을 방문하다보니 아찔한 에피소드도 많았어요.



97. 6. 27 대대공장 이전



97. 12. 1 유방 중소기업 지정



97. 12. 6 한마음운동 실천 결의대회



Q 첫 납품하던 순간은 어땠나요?

최동배 부장 : 첫 납품은 PURIFIER UNIT였어요. 아무도 못할 것이라 했는데 최금식 사장님의 '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성공할 수 있었어요. 처음하는 설계였지만 결국 우리가 해낸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던 만큼 선보의 첫 작품은 성공적이었고 조선소 내에서 좋은 이미지를 굳힐 수 있는 시작이었어요. 그 이후로 우리 회사 자체 기술력을 확보했고 조선소 공정이 단축될 수 있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었어요. 성공적인 첫 시작인 지금도 가장 가슴 두근거리는 순간이네요.

최홍렬 상무 : 다들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신념으로 함께 도전해 나간 결과라고 생각해요. 선보를 같이 이끌어 나가면서 함께 땀 흘렸고 그런 동료애가 선보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봐요. 성공적인 납품을 이어나가고 연간 매출액도 상승하고, 91년도에 연간

매출액이 31억이었는데 2000년도 연 매출액이 171억이라고 하니 엄청 나죠? 이렇게 선보가 성장해나가면서 선보인으로서의 자

부심도 함께 커져갔죠. 이제 이 자부심이 우리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Inside SUNBO 회사 소식

헌혈로 만드는 사랑나눔 문화



지난 16일 우리 회사 봉사 및 4개 공장 직원 60여명이 헌혈로 따뜻한 사랑과 나눔에 동참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된 이번 헌혈 캠페인은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도움이 되어 생명나눔을 실천하고자 실시되었다. 헌혈을 함께 하고자 한 직원은 많았지만 악복용, 건강상의 이유로 부적격자가 다수 발생하여 실제 지원의 20%밖에 참여할 수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헌혈을 함께한 장창근 대리는 "좋은 계기가 되어 이렇게 헌혈을 할 수 있어 좋고, 잠깐의 아픔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 뿌듯하다"며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참여하고 싶다"

고 전했다. 실제 참여 인원은 많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엿볼 수 있었던 이번 헌혈 캠페인을 계기로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랑나눔을 기약해 본다.



업무 속 정보보안 체크 사항 "모니터에 붙어 있는 비밀번호"



우리 회사는 보안 강화를 위하여 각 개인 PC 로그인 시 암호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PC에는 버젓이 모니터에 개인 비밀번호가 붙어 있어 보안의식 고취가 시급히 필요하다. 물론 담당자의 부재, 출장, 현장순찰

등의 이유로 긴급히 담당자의 PC에 로그인 할 필요성이 있으며, 고객에게 신속히 응대하기 위하여 개인 비밀번호를 모니터에 부착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보안 위해 사항이며, 비밀번호로 PC를 보호하는 의미가 없어질 수밖에 없다.

보안을 위하여 지금 즉시 모니터에 붙어있는 암호를 떼기 처분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비밀번호가 이미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Life 추천여행지

천혜의 자연경관을 한눈에 아미산전망대

낙동강, 가야의 동쪽을 흐르는 강을 의미한다. 천 심백리의 장대한 낙동강은 태백에서부터 물길이 시작되어 을숙도로 흘러온다. 그리고 강이나 하천이 바다와 만나는 낙동강 하구는 인구 100만명이 거주하고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가운데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게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처럼 생태의 신비로움이 가득하고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낙동강 하구를 가장 잘 조망할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지난 3월 개관하여 생태 학습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아미산 전망대'이다. 아미산 전망대는 아미산 자락 끝에 세워진 전망대로 다대포와 낙동강 하구의 전경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다대포의 장엄한 낙조, 낙동강 하구의 삼각주를 시원한 전망대에서 한꺼번에 전망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맹금매리등, 대마등, 백합등, 진우도, 도요등, 장자도 등 낙동강 앞 바다의 모래섬이 변화하는 모습과 을숙도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고, 낙동강 하구의 아름다운 해넘이를 감상할 수 있는 최적지라 할 수 있다. 운이 좋다면 낙동강 하구에서 날아올라 대형을 갖춘 새 날아 다니는 철새들의 군무(群舞)도 즐길 수 있다고 하니 특별한 경험이 될 지도 모르겠다.

낙동강하구 일대는 예로부터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맑고 매력적인 도심 속 생태하천으로 알려져 지난 1986년 철새도래지로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다.

아직 개관한지 얼마 되지 않아 휴식공

간이나 기념품점은 운영되지 않고 있지만 탁월한 전망 속에서 가슴 트이는 순간을 맛보고 싶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숨겨진 장소이다.

낙동강 하구에 대한 아쉬움이 느껴진다면 근처 사하구 하단동에 위치한 낙동강 하구 에코 센터를 찾아가보는 것도 좋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유·무료 체험 프로그램과 강좌가 준비되어 있어 인터넷 (<http://wetland.busan.go.kr>)을 통해 미리 예약하고 간단명료하게 프로그램을 즐겨볼 수 있다.

이번 주말은 스트레스로 복잡한 머리, 답답한 마음을 잠시나마 아미산 전망대에서 벗어던져보는 것은 어떨까.



Inside SUNBO 우수 협력사 탐방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다인산업'

느꼈다. 그는 "선보는 한번 맺은 인연과 끝까지 동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런 선보를 무조건적으로 믿고 따라가려한다"며 선보에 대한 깊은 신뢰를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납기일과 품질이었다. 최동재 대표이사는 "품질관리가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완벽할 수가 없다. 가끔씩 오작이 생기기에 모든 작업에 신중을 신중을 거듭할 뿐이다"라고 전하며 "그래도 오랜 세월 함께 해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품질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자부심을 나타냈다.

언제나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물량이 들어오면 바로 작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한다는 다인산업은 직원들뿐만 아니라 최동재 대표이사도 몸을 사리지 않는다. 그는 "작업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나 또한 쉬지 않고 열심히 뛰어어야한다. 물량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바쁘게 움직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에 늘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 한다"며 일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최동재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선보에 양질의 제품을 공급할 것을 약속 드린다"며 "기회가 된다면 선보와 가까이서 작업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같은 일을 충실히

해내주어 고맙다"며 "앞으로도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사상구 관전동의 위치한 다인산업은 파이프 배관 제작 전문회사이다. 작업장에서 직원들과 사장님께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은 하나의 가족을 떠올릴 수 없었다. 다인산업이 선보와 인연은 맺은 지는 벌써 20여년이 넘었다. 오랜 세월 함께 일하면서 믿음과 신뢰가 쌓여서일까 선보에 대한 인연을 이야기하는 최동재 대표이사에게서 가족같은 친근감이

Life 최홍렬 상무의 이달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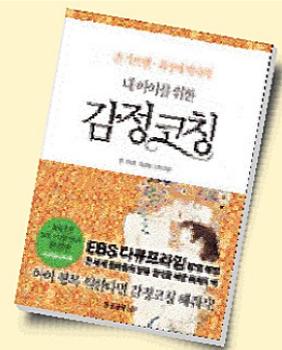
존 가트맨 · 최성애 박사의 내 아이를 위한 감정코칭

가족치료의 세계적인 권위자 존 가트맨 박사가 30년간 3천 가정을 연구 조사하여 만들어낸 '감정코칭'이란 육아법은 이미 수많은 가정 및 학교에서 이루어지며 그 효과를 인정받고 있다. 존 가트맨 박사는 장기간 프로젝트로 부모와 아이들에게 감정 지도법을 교육하고 놀라운 변화를 실제 경험했다. 이 놀라운 경험은 아시아 유일의 가트맨 공인치료사인 최성애 박사와, 교수를 가르치는 교수로 유명한 조벽 박사가 국내로 도입해 대한민국에 수많은 가정과 학교에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IQ가 높은 아이보다 EQ가 높은 지혜로운 아이가 행복하고 성공한다는 것은 이미 밝혀졌다. 정서지능 (Emotional Intelligence)이란 아이가 자신의 감정과 충동을 통제하고 통제하며, 타인들의 감정에 대해 예민하게 느끼고 인내심을 지속시켜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다. 감정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감정적인 표현이 풍부한 아이가 정서지능이 높은 아이이다. 이처럼 내 아이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는 정서지능은 '감정코칭'에 의해 길러진다. 감정코칭으로 자기감정을

인정받은 아이는 타인의 감정도 쉽게 인정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대인관계뿐 아니라 학습 향상, 자신감, 건강, 집중력 등 다방면에서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내 아이를 위한 감정코칭]에는 가트맨 박사가 인정한 상담과 현장 코칭을 통한 감정코칭 실전법을 갖고 있는 최성애 박사가 그동안 경험을 통해 효과를 본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감정코칭의 노하우를 보여주고 있다. 생생하고 공감 가는 수많은 실제 사례는 감정코칭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자녀양육에 및 아동교육에 적용해야 할지 모르는 학부모와 교사들



에게 현장에서 바로 사용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감정코칭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Run SUNBO Run 생생 현장의 소리

참을 인(忍)을 통해 나의 무대를 꿈꾸다.



최판조 회장

다대 1공장

많은 위인들은 말한다. 참고 인내하라고. 이 참을 인(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있다. '참다. 인내하다. 그리고 질기다.' 참고 인내하는 고통 후에는 큰 결실이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질김이 있었기에 탄탄한 성공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것이다. 참을 인이라는 인생의 좌우명을 가지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오늘의 주인공 생산팀 최판조 부장이다.

인생의 좌우명도, 집안의 가훈도 '참을 인' 인 만큼 그에게 있어 만족은 어려운 일이다. 최고가 나오기 까지 계속해서 시도하고,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

최판조 부장이 선보에서 근무를 한 지는 어느덧 5년. 주로 배관 조립을 담당하고 있다. 선보에 근무를 시작하면서 조선업계에 첫 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처음에 어려운 점도 많았다고 한다.

"처음에는 이 일을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일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다 보니 일이 재미

어지더라고요. 배우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이제는 노하우도 생기고 즐기는 여유도 생긴 것 같아요"라는 그의 말에서 일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다.

일에 대한 애정, 그리고 그에게는 처음 선보에 근무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자부심.

"조선업계 내에서 선보의 수준을 가지기도, 따라오기도 힘든데, 선보의 이름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있어 큰 자부심 이죠"라고 이야기 했다.

직업을 할 때 항상 최선을 다하는 동료와 있어 좋은 자부제가 된다는 그.

"모두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회사와 생산의 격차가 있지만 이 격차를 잘 줄여나갈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할 것이다"라며 "앞으로 다른 팀 못지않은 우수한 팀이 되고 싶다"는 그의 표정에

서 강한 자신감이 느껴졌다. 평소 최판조 부장이 아들에게 강조하는 말이 있다고 한다.

"사람은 항상 무대 위에 서야지 무대 아래서 박수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부족한 것이 많아 무대 아래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지만 훗날 꿈을 이루고 나의 무대에 우뚝 서는 주인공이 되고 싶다."며 그의 꿈을 이야기 했다.

최판조 부장이 그의 무대 위에서 꿈을 이룬 멋진 모습이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Run SUNBO Run 칭찬 릴레이

탁월한 선보의 살림꾼



박현철 팀장

영도공장

이번엔 선보가족 칭찬릴레이 주인공이 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제가 칭찬릴레이 주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칭찬을 받을 만한 일 한 것이 없다고 생각

되는데 이렇게 칭찬 릴레이 주인공으로 뽑혔다고 하니 얼떨떨하고 쑥스럽기만 하네요. 칭찬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행복한 일인데 제가 그 행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니 믿기지 않아요.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라고 생각되고 반드시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평소 어떤 마음가짐으로 근무하세요?

선보에서 근무한지는 3년 정도 되었지만 선보와의 인연은 꽤 오래되었어요. 주로 현장 지원을 맡아 모든 자재나 안전소모품을 담당하고 있지요. 회사의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근검절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일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팀의 역할인 것 같아요.

다른 팀원들과 의견 조율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사고 없이 현

장이 잘 운영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면 뿌듯함이 느껴져요. 간간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지만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분해야 할 게 보았을 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조선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빨리 회복되어 정상 궤도로 올라가고 무엇보다 앞으로 선보가족 모두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Q 다음 칭찬릴레이 주인공을 추천하고 싶은 분은 누구인가요?

주변에 칭찬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 고민이 되네요. 다음 주인공으로 영도 공장 생산팀 이재근 부장을 추천하고 싶어요.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평소 저에게 많은 귀감이 되어왔어요. 밤낮 없이, 몸사리지 않고 일할 때가 많아 지켜보는 입장에서 걱정될 때도 많았거든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재근 부장을 다음 주인공으로 추천합니다.

칭찬 릴레이는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선보에 정착되기를 바라며 펼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Run SUNBO Run 안정된 과정의 "틀린 그림" 찾기 - 5곳이 있습니다



Run SUNBO Run 축하합니다

생일

다대공장

해양플랜트 이우철(3/1)
 자체조달 서상식(3/24), 권구연(3/18)
 설계팀 윤우희(3/24), 이종진(3/9)
 품질경영 권희정(3/28)
 기술개발 박영택(3/28)
 안전환경 장정근(3/5)
 1공장 최원석(3/5), 서재욱(3/15), 김정욱(3/21), 박종현(3/27), 조현상(3/19)
 2공장 김정욱(3/15), 이해음(3/11), 배승용(3/12), 김진삼(3/23), 김휘동(3/25), 이종현(3/28), 신재용(3/28), 구동우(3/14), 김승우(3/24)
 3공장 김승우(3/24)
 순해공업 정귀필(3/23), 김영동(3/19)

구평공장

설계팀 오재배(3/1), 윤태용(3/1)
 평상운영 차정준(3/8), 장호영(3/5), 양상민(3/19), 정인우(3/8)
 서경프린트 이상진(3/1), 오우정(3/10), 구본형(3/14), 홍준관(3/1)
 보성산업 권태식(3/20), 정용수(3/17)

입사기념일

다대공장

기술운영 김정욱(3/20)
 자체조달 황지석(3/3), 권구연(3/23)
 품질보증 방대혁(3/8)
 플랜트해양영업 전형남(3/15)
 설계팀 박이훈(3/8)
 설계2팀 이재훈(3/8)
 설계3팀 윤은석(3/8)
 생산관리 신상진(3/7), 정재현(3/3), 조재현(3/23)
 1공장 임의상(3/18), 박희순(3/1), 조숙희(3/9)
 2공장 한인우(3/2), 이재현(3/9), 김경재(3/13)
 3공장 임종화(3/28), 윤기현(3/1)

구평공장

임원 강부영(3/23)
 생산관리 윤홍남(3/2), 김지훈(3/8)
 자체운영 박준복(3/2)
 설계팀 김연진(3/8), 김정식(3/8), 이석형(3/8), 유필청(3/8)
 설계6팀 이수진(3/8)

영도공장

생산관리 김리현(3/1)
 품질보증 박현일(3/8)
 생산관리 조연주(3/17)